

## 제 1 장: 18 세기

1727

8월 13일 - 독일, 헨하트(Herrnhut) (니콜라스 본 진젠도프(Nicholas Von Zinzendorf))

오늘날 아무도 그날 수요일 아침 성찬식 예배를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난민촌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이가 그 엄청난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교회사]는 특별한 성령 충만함의 많은 사례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 한가지 예로, 1727년 8월 13은 진실로 그 성령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성령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날에 기적과 이사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였다. 그 비밀스러운 날이 지난 후부터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전능한 역사들을 지켜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영적인 배고픔을 간직한 우리들은 하루에 세 번씩(오전 5시, 7시, 그리고 오후 9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그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주의, 고집, 불순종은 사라지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거룩하고 넓은 사랑의 바다로 인도하여 깨끗하게 씻어 주기를 소원하였다 (그린필드(Greenfield) 1927, 14).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공동체의 젊은 지도자인 니콜라스 누드윙(Nicholas Ludwing)이라는 진젠도프(Zinzendorf)백작은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성찬식에 동참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다음 세대의 축제의 날이 되었다. 왜냐하면 27년 전의 이날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베클스도프(Berthelsdorf)교회에 모인 헨하트(Herrnhut)신도들 모두가 그들 스스로 불만을 느낀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부적절한 모습으로 개종되어 있었고, 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스스로만 구세주의 귀족적인 모습으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런 인간의 슬픔과 고통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든지 또는 그들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는 후원자 아니면 제사장이 되어 주기를 호소했다. 이 희망이 오늘날 그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근본적인 열쇠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런 자신들의 과거추억들을 통해 행복으로 인도하였다. 또 그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과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 주었다 (그린 필드(Greenfield), 1927, 15).

진젠도프(Zinzendorf)는 현재 모든 사람들과 그때 그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험들에 대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 느낌’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헨하트(Herrnhut)에 모여있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분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그들 위에 임하였을까요?

헨하트(Herrnhut)무리는 대부분 모라비안(Moravian)피난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라비안(Moravian)형제들은 보헤미야(Bohemian)사람 존 휴스(John Huss)의 업적과 순교의 영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몇 세기 동안이나 박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사형, 투옥, 고문, 추방을 당했습니다. 피난처를 찾고 있던 이 무리는 1722년에 젊은 크리스천 귀족인 진젠도프(Zinzendorf)백작이 색소니(Saxony)에 있는 자기의 영토에 제공한 난민촌에 가려고 독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키심”이라는 뜻의 헨하트(Herrnhut)란 이름을 그들의 보금자리 처소에 붙였습니다.

비록 모라비안(Moravian)사람들이 처음 거기에 보금자리를 잡은 무리였지만,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루터파, 개혁파, 아노뱃티스트(Anabaptists)들로부터 헨하트(Herrnhut)까지 침입을 받았습니다. 1727년 초에 가열된 논쟁으로 인해 이 무리들은 분열의 위기에 처했고, 결국 다수의 교파들로 분리되면서 운명(Destination), 거룩함(Holiness), 세례(Baptism) 등의 교리적인 문제들을 놓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워 다른 교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젊은 독일의 귀족인 진젠도프(Zinzendorf)백작은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의 통일을 잘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년 전, 4살의 어린 나이에 개심한 진젠도프(Zinzendorf)는 하나님과의 서약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나의 전부가 되어 주소서. 그러면 저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고 그의 인생의 좌우명을 ‘오직 예수’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십대의 소년으로 그는 많은 기도모임을 만들었고, 특별히 그가 16살의 나이로 할레(Halle)에서 대학을 마칠 때는 유명한 프랭크(Francke)교수님에게 자신이 직접 설립한 7개의 기도하는 사회단체들을 소개했습니다.

진젠도프(Zinzendorf)는 헨하트(Herrnhut)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심각하게 분열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모라비안(Moravian)에게 그들의 다른점들을 강조하는 것보다 그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언약문을 작성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1727년 5월 12일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길 것과 그 언약문을 따를 것에 합의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은혜의 영, 화합의 영, 애원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이와같이 1727년의 모라비안(Moravian)부흥은 비범한 기도로 진행되었고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6월 16일에 진젠도프(Zinzendorf)는 영혼에서 울려 퍼져오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특별한 영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전체 모라비안(Moravian)집단이 예전같지 않은 기도회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모라비안(Moravian)사람들은 6월 22일부터 가끔씩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내어 놓기로 하는 그들 스스로의 협정에 서약했습니다.

8월 5일 저녁에 있었던 엄청난 흥분과 감격으로 인도된 기도모임이 끝난 자정에 진젠도프(Zinzendorf)는 약 12명에서 14명 되는 사람들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10일 주일날에는 헨하트(Herrnhut)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로트(Rothe)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여 정오까지 감격에 넘치는 기쁨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처럼 가라 앉아 버렸습니다. 그의 신도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정이 가깝게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님께서 8월 13일 수요일에 그들 위에 다시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되는 성실한 기도를 위해 일정한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젠도프(Zinzendorf)는 그것을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성령(The Holy Spirit)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께서 허락하셨다. ... 지금까지 우리는 지도자들 이었고 도움을 주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성령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을 통해 모든 것을 주관 하신다” (그린필드(Greenfield), 1927, 21).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 성도들은 8월 26일 목요일에 매일 한 사람씩 한 시간씩 밤낮을 바꾸어가며 릴레이 기도운동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8월 27일 수요일에 이 새로운 중보기도의 약속이 전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그 숫자는 77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조심스럽게 주어진 시간을 헌신하였고 또한 매주일 모여 기도가 요구되는 일들에 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들 스스로가 유사한 계획을 세워 간절한 기도회를 시작하였는데 이를 지켜보던 어른들이 깊은 감명을 받아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기도와 간구는 전체 공동체에 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1727년에 시작한 놀라운 이 기도모임은 1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매 시간의 중보기도는 남녀 성도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운동은 더 나아가 복음전도운동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성령의 체험적인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무리는 성령충만으로 선교열정을 가지고 복음전도자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그 골짜기 공동체를 떠났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기도로 선교사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50년이 지나 현시대의 선교사역이 윌리엄 캐리(William Carry)로부터 전개되기 전에 모라비안(Moravian)교회는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 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정기 간행물(Periodical Account)은 어느 침례교 집회에서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던진 윌리엄 캐리(William Carry)를 격려했습니다. 그 종이에 이런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모라비안(Moravian)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세계로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요! (그린 필드(Greenfield), 1927, 19).

기도는 사도행전의 오순절날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헨하트(Herrnhut)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을 잘 배웠고 기도의 중요성을 후대에 잘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의 성령세례의 결과는 기쁨에 넘치는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Wesley)신도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고, 18세기 복음전도적인 각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 1735

### 1월 - 미국, 뉴잉글랜드(New England) (죤나단 애드워즈(Jonathan Edwards))

목회자이며 학자였고 후에는 프린스턴(Princeton) 대학의 총장이었던 죤나단 애드워즈(Jonathan Edwards)는 미국의 뉴잉글랜드(New England)공동체들과 개척자의 정착지 등지에 퍼진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불리는 부흥운동의 원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1735년으로 접어드는 1734년 늦은 12월에 노렘튼(Northampton)으로부터 시작하여 뉴잉글랜드(New England)가 위치한 미국 동북지역에 평범치 않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크리스찬으로 개심한 사람의 숫자가 식민지 인구 25만명 가운데 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급속도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애드워즈(Edwards)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종교생활의 엄청난 것들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솔직하고 진실한 관심이 지위고하와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온 시내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중심소재가 되었다; 마른 뼈 사이의 소리가 커져 가기 시작했다;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야기 소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 갔다. ...

사람들의 마음이 놀랍게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떠났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 졌다. 그들은 세상적인 일만을 자신들의 삶의 전부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정신적 의향을 더 잘 따르는 것 같았다. ...

사람들의 개심이 너무도 놀라운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그 숫자도 점점 증가해 갔다;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어두움에서 나와 불가사의한 빛으로 인도 받는 죄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나타났다. ...

이런일 후 우리의 공적인 집회는 보기가 좋았다: 성도들은 생동감 넘치는 예배를 드렸고, 모든 사람이 예배에 열심으로 모였고, 모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청중했다; 성도들은 대부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감격했고, 또 다른 이들은 주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죽은 영혼들을 위해 애정과 관심의 눈물도 흘렸다. ...

우리 가운데 먼저 개심한 사람들은 활기를 띠었고 성령님의 임재를 새롭고 특별하게 체험하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사의 주어짐에 따라 어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체험하였다. 전에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이 의심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체험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이 제거되었다 (에드워즈(Edwards) 1835, 348).

에드워즈(Edwards)는 이 부흥의 특징들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위대함, 그리고 신성함을 느끼는 야릇한 기분이 가끔씩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사로 잡았다. 모든 이들이 살을 애는 듯한 기분으로 하나님의 눈을 보며 가끔씩 육체적인 기운을 잃게 되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죄가 드러난 죄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것을 떨면서 기다리는 듯이. ... 그리고 ...

하나님을 더욱 더 사모하는 것과 그와 유사해 지는 것- 특별히 이 두 가지 모두가 사모되어 그 분을 위한 겸손과 숭배가 더욱 성숙 되었다. 육체와 마음이 종종 우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사랑과 겸손으로 예배를 드렸다. ...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큰 즐거움으로 흥겨워 했고, 어떤 이들은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 되기를 사모하기도 했다. ... 거기에는 믿음 안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우리의 지혜와 의지를 의심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의지하는 신실한 마음들이 역동하였다 (에드워즈(Edwards) 1835, 377).

1735년에 있었던 뉴잉글랜드(New England)부흥으로 인해 개심한 사람 가운데 영국에 있던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와 웨일즈(Wales)에 있던 호월 허리스(Howell Harris)라 하는 젊은 청년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21살의 나이로 부흥의 불을 붙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심하게 되었고 또 사회변화도 일으켰습니다. 1736년 허리스(Harris)는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1739년에는 거의 30개의 공동체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휘필드(Whitefield)는 1738년에 조지(George)주를 광범위하게 방문하면서 설교했고 (이때가 7번의 미국방문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1739년에 호월 허리스(Howell Harris)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목회를 펼쳤습니다. 1740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와 함께 뉴잉글랜드(New English)에서 목회를 하는 등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때에 이 부흥을 도운 사람으로 생각되는 이가 미국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웨슬리(John Wesley)였고, 그는 1735년말에 영국국교회 선교사로 미국에 있는 한 식민지인 조지(George)주를 향해 향했습니다. 모라비안(Moravian)친구들이 그와 같은 배로 항해를 했고 무서운 폭풍이 불어 왔을 때 그들 모두는 파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이 경험에 대해 1736년 1월 25일 일요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저녁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내가 그들의 진지한 행동을 관찰하기 전에 그들은 겸손한 마음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겸손은 영국사람이 따라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승객을 위해 경건히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잘 증명되었다.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댓가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하루하루 삶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만약 그들이 넘어져 쓸어졌다면 그들은 다시 시작 했을 것이다. 아무런 불평의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들이 공포의 영에서부터 구출 받았고 자존심, 성냄, 그리고 복수에서 벗어 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찬송하는 가운데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바다의 파도는 넘쳐와 주요한 닻을 산산 조각을 냈고 온 배를 뒤 덮었다. 파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삼킬 것처럼 갑판 위에 채워 졌다. 이상한 비명 소리가 영국 사람들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독일 사람들은 고요하게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일 후에 한 독일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합니다.” 난 다시 물었다. “하지만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응답하였다. “우리 부인과 어린이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린필드(Greenfield) 1927, 35 - 36).

1738년에 미국 죠지(George)주에서의 짧고 실망적인 선교사역에서 돌아온 존 웨슬리(John Wesley)와 그의 형제 찰스(Charles)는 그의 조국인 영국에서 모라비안(Moravian)선교사 피터 볼러(Peter Bohler)를 통해 도전을 받았 습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3월 4일 토요일에 나는 옥스포드(Oxford)대학에서 늑막염을 치료받고 있는 나의 형제를 찾았다.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피터 볼러(Peter Bohler)를 통하여 나는 5일 일요일에 스스로 알고 싶어했던 믿음을 발견하여 불신앙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설교를 그만두라” 어떻게 믿음도 없이 설교를 하느냐?” 나는 피터 볼러(Peter Bohler)에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떨쳐 버려야 할지 아니면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할지 상담하였다.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설교 할 수 있을까요?” 피터 볼러(Peter Bohler)가 응답하기를 그러면 “당신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 믿음에 대해 설교하고, 그런 다음에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해 보세요” 라고 답변했다.

3월 6일 월요일, 비록 나의 영혼은 많은 일들로 피곤해 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 새로운 교리를 설교하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믿음으로 구원을 소개한 사람은 사형선교를 받은 죄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클리포드(Clifford)였다. 피터 볼러 (Peter Bohler)는 전에 여러 번 내가 그와 이야기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회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결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Idle) 1986, 43).

존(John)과 찰스(Charles)는 모두 1738년 5월에 회심하였는데 찰스(Charles)가 먼저 회심하였고 3일 후인 5월 24일 수요일에 존(John)도 회심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유명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저녁에 나는 기운없이 에더스게이트 거리(Aldersgate Street)에 있는 한 사회단체에 참석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로마사람에게 가는 루터(Luther)서한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약 9시 15분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을 때에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 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나의 죄악적인 마음을 없애 버리고 죄와 죽음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이들(Idle) 1986, 46).

그 다음 해에 존 웨슬리(John Wesley)는 헨하트(Herrnhut)에 거주하는 모라비안(Moravian)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찬사를 보냈고, 전세계로 퍼진 그들만이 품기는 크리스찬

적인 생활방식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복음 전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때로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종교적인 공동체(그의 감리교적인 진행순서 때문에 그들로부터 감리교인들이라고 호칭이 붙여 졌습니다)로 불러 들였고, 모라비안(Moravian)과의 관계를 뜨겁게 유지했습니다. 복음전도적인 부흥의 불씨는 영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 다음 해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 1739

### 1월 1일 - 영국, 런던(London)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 존 웨슬리(John Wesley))

1739년에는 매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월 1일,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온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와 존 웨슬리(John Wesley) 그리고 전에 옥스포드 (Oxford)대학의 거룩한 모임(Holy Club)의 회원인 4명의 동료들과 다른 60명의 사람들이 기도와 사랑의 축제를 위해 런던(London)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모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육신 가운데 직접 찾아와 그의 권위를 부여해 준 것으로 깨닫았습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홀(Hall), 킨친(Kinchin), 잉그함(Ingham), 윗필드(Whitefield), 히친스(Hitchins), 나의 형제 찰스(Charles), 그리고 약 60명의 우리 형제들이 페터 레인(Fetter Lane)에서 있었던 사랑의 축제에 참석하고 있었다. 새벽 3시경까지 우리 모임이 기도로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능하게 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환희의 울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이들은 땅에 엎드려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엄한 임재하심에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우리는, “오 주여,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들(Idle) 1986, 55).

새해 첫날에 일어난 이 오순절같은 사건은 교회사에서 영적 대각성의 일부분으로, 영국 전국에서 복음전도적인 부흥을 전개시켰습니다. 이 부흥은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1739년 2월에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는 브리스톨(Bristol) 가까이 있는 야외에서 킹스우드(Kingswood)의 석탄 광부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그를 대적했고 일부 복음주의 반대세력들이 그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는 야외에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 야외집회를 시작했을 때에는 약 200명의 성도들이 참석을 했지만 3월로 들어서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는 이 집회를 존 웨슬리(John Wesley)에게 인수하고자 그를 초대했습니다. 웨슬리(Wesley)는 마지못해 그것을 동의

하였는데, 이것이 50년동안 계속된 그의 유명한 야외목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일기에 그 첫 주일에 대한 기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3월 31일 토요일 저녁에 나는 브리스톨(Bristol)에 도착하여 핏필드(Whitefield)를 만났다. 야외에서 설교하는 이상한 목회방법은 나의 적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았지만, 다음날 일요일에 조지 핏필드(George Whitefield)는 나를 야외 설교자로 임명하였고, 이것이 나의 삶 전부가 되어 버렸다. 나는 나의 모든 예의바른 몸가짐과 도리에 관련된 고집들을 버리고 영혼구원을 위해 조그마한 죄라도 깊이 생각하고 지켜 나가야 했다.

4월 1일 일요일 저녁에 나는 주님의 산상수훈을 니콜라스 거리(Nicholas Street)에 있는 한 작은 공동체에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야외설교의 한 선례이다)

4월2일 월요일 오후 4시에는 더욱 낮아지기로 작정하고, 거의 3천명이 모여있는 시내와 인접한 들판의 큼직한 바위 위에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 큰 길을 달리듯 시원하게 선포하였다. 내가 그들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나에게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기쁨을 부으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시도다”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Idle) 1986, 56-57).

가끔씩 이상한 현상들이 부흥설교에서 나타났습니다. 웨슬리(Wesley)는 1739년 4월 26일의 일기장에 그가 브리스톨 뉴게이트(Bristol Newgate)에서 설교하는 동안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땅 바닥에 엎드려 졌다. 그들은 벼락맞은 듯 사망에서 땅바닥으로 넘어졌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백하우스(Backhouse) 1996,212).

그는 6월 달에 런던(London)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성령이 깜짝 놀랄만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음을 간증하였습니다. 이 부흥의 특징들로는 열광적인 찬양과 능력있는 설교 그리고 ‘매주 학습반 모임(Weekly Class Meeting)’으로 알려진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이 작은 마을마다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조지 핏필드(George Whitefield)같은 초창기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집회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뀌었습니다. 웨슬리(Wesley)는 1739년 7월 17일에 이런 사실의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종종 하나님의 내적인 일을 동반한 외형적인 현상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남에 대해 핏필드(Whitefield)와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나는 핏필드(Whitefield)의 비판이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전적인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의 적용 부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인도했다. 그러자 그 가운데 4명의 사람이 동시에 땅으로 넘어졌는데, 그 중 하나는 아무 감정이나 정신이 없이 엎드려 졌고, 둘째 사람은 몹시 무서워하면서 겁을 냈고, 세번째 사람은 몸 전체에 강한 경련을 일으켰으나 신음하는 소리는 내지 않았다. 네번째 사람은 같은 경련과 함께 눈물어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을 무릅쓰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었다 (백 하우스(Backhouse) 1996, 212).

존 웨슬리(John Wesley)와 조지 핏필드(George Whitefield)는 야외목회를 비롯해 그들을 환영하는 많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조지 핏필드(George Whitefield)의 7번째 미국방문 또한 그곳에 부흥의 불씨를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Scotland)에도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는 1741년에 글라스고우(Glasgow)를 방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흥이 전개 되었기에 글라스고우(Glasgow)에 인접한 마을의 목사님 두 분이 그를 1742년에 다시 초대했습니다. 개심한 사람들과 기도 모임이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는 글라스고우(Glasgow)에서 4마일(Miles)정도 떨어진 캄버슬랭(Cambuslang)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야외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는 멀리 산 중턱에서 그가 전에 보지 못한 엄청난 무리들이 눈물의 회개를 하면서 회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인 토요일에는 2만 명이 모였고 일요일에는 그 공동체의 4분의 1일인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펜타코스트(Pentecost)의 능력이 함께한 성령의 방문은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를 매우 놀라게 하였습니다.

1745

**8월8일 - 미국, 크로스위크성(Crossweeksung) (데이빗 브레인너드(David Brainerd))**

1743년부터 29살의 나이로 그가 죽을 때(1947년)까지 북아메리카 인디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 데이빗 브레인너드(David Brainerd)는 1745년 8월 8일 크로스위크성(Crossweeksung)에서 인디언들 가운데 일어난 부흥을 전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바람을 몰아치듯 온 것 같았고 인디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브레인너드(Brainerd)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복음의 공급, 그리고 거룩한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진정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습관은 버려지고, 결혼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술 취함이 사라졌고, 정직과 빛 같은 것이 잘 이행되었습니다. 술 마시는데 쓰이던 돈이 가족과 공동체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 사회는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745년 8월8일 목요일에 쓰여진 그의 일기의 한 부분은 이것을 잘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군중들 위로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듯 내려오는 것 같았고, 매우 놀라운 권능이 그들 앞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전체 군중들을 사로잡은 그 능력에 매우 놀라 있었고 견딜 수 없는 감정폭발의 규모는 다른 아무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 이 놀랄만한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워드(Harward) 1949, 216-217).

데이빗 브레인너드(David Brainerd)선교사는 11월20일에 크로스위크성(Crossweeksung)에서 일어난 부흥을 그가 그 해 일년 간의 일을 적은 기록에 포함해 놓았습니다 (그 해에 그는 말을 타고 3천마일(Miles) 이상을 달려 뉴잉글랜드(New English)에 사는 인디언 부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의 사역에 관한 기록들을 남길 것이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단지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만 소개할 것이다.

1. 나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아 소망이 없을 때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인디언들 가운데 전개되었다. 이 사실은 기록할 만한 것이었다.
2. 하나님은 인디언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기 적절하게 그들의 영혼에 영적인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오자마자, 영원한 구원에 어떻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했는지 놀랄만한 만한 것이었다.
3.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불쌍하고 무지한 인디언들에게서 나(백인)와 내가 가르치는 진실에 대해 모든 편견을 어떻게 제거하셨는지 참 놀라운 일이었다. ...
4.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량으로 인디언의 언어를 비범하고 적당하게 통역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
5.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그의 일을 여러가지 의미에서 성취해 가셨다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그들의 편견과 일을 방해하는 반대세력들이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것이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 공회와 복음의 풍부한 공급, 또한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죄인들에게 자유와 거룩한 은혜를 제공해 주심을 - 간절히 호소할 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깨달은 무리 가운데 그 영적 대각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6. 이 사역으로 나타난 영향 또한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 그들의 이교도적인 관념과 우상숭배 습관은 그들 가운데서 완전히 떠났다.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불안정한 결혼관계를 바로 정립했다. 비록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술에 빠져 살았지만, 최근에 그들은 술 주정하는 생활을 청산한 것같이 보였다... 정직과 공의의 원리 원칙적인 생활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그들의 오래된 빛들을 청산하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였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전보다 많이 예의 바르고 공손해졌다. 사랑이 그들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특별히 그들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같이 보였다 (하워드(Harward) 1949, 239-251).

1781

12월 25일 - 영국, 콘웰(Cornwall)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40년이 지난 후, 부흥의 불씨는 많은 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관심있는 지도자들은 교회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죤나단 애드워즈(Jonathan Edwards)는 미국에서 “종교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한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명한 동의와 눈에 보이는 연합을 장려하는 겸손한 시도 (A Humble Attempt to Promote Explicit Agreement and Visible Union of God's People in Extra-ordinary Prayer for the Revival of Religion and the Advancement of Christ's Kingdom)” 라는 학술논문을 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과 스코틀랜드(Scotland)에서 다시 인쇄가 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에딘버그(Edinburgh)의 존 어스킨(John Erskine)은 전세계를 상대로 편지를 통해 기도할 것을 당부함으로써 끊임없이 사역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는 ‘기도음악회’라고 불리는 매달 정기 교회연합 기도모임을 전파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모임들은 영국과 미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를들어, 중보 기도자들은 콘웰(Cornwall)에 있는 성 저스트 교회(St. Just Church)에서 1781년 12월 25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기도를 했고, 크리스마스날 저녁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강하게 임하셨기에 다시 기도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부터 1782년 3월까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자정이 가깝도록 기도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기도모임을 통해 회심하였고, 부흥의 물결은 다시 영국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침례교인, 감리교인, 그리고 영국국교의 교인들도 함께 이 모임에 참석하여 부흥을 선망했습니다.

83세였던 존 웨슬리(John Wesley)도 1784년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이 나라는 온통 성령의 불길에 싸여있고 그 불씨는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퍼져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로빈슨)Robinson 1992, 8).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의 공로로 지어진 런던(London)의 토트햄(Tottenham)법원 길목에 위치한 예배당은 5천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증축되었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과 능력있는 설교는 회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새로이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영국과 북아메리카를 복음의 물결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18세기의 신성한 부흥은 영국과 미국에 영적 대각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감리교인들은 14만 명이 되었고 다른 교회들과 크리스찬들도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운동은 영국사회에 큰 변화를 주어 윌리엄 위버포스(William Wilberforce), 윌리엄 벅톤(William Buxton),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의 노고에 힘입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등의 정치 개혁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존 하워드(John Harward)와 엘리자벳 프라이(Elizabeth Fry)는 교도소 개혁을 선도하였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은 현대식 간호법(병구완)을 창설했습니다. 슈프티스버리(Shaftesbury)의 어스리 코퍼(Ashley Cooper) 백작은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영적 부흥운동은 계속 성장하였고 윌리엄 캐리(William Carry), 앤드류 플러(Andrew Fuller), 존 슈클리프(John Sutcliffe),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죽은 다음 해인 1792년에 두번째 영적 대각성이 영국과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